

2007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성황리에 개최

낙 농가의 축제인 “2007한국홀스타인품평회”가 지난 10월 10(수)~11(목) 양일 간 개량은 미래의 약속! 개량의 결실은 품평회로! 슬로건 아래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에서 낙농가 및 관련업체,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품평회는 전국 9개 광역시·도, 32개시·군, 119농가에서 총 199두가 출품되었으며, 지난해 베스트 쓰리 피메일(Best Three Females), 카운티 허드(County Herd)에 이어 올해는 리딩 콘테스트(Leading Contest)를 신설한 총 15개부로 나누어 심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출품우의 자격기준을 부모만을 알 수 있는 혈통 등록우에서 조부·모대 이상의 혈통을 가진 3대 혈통이 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전국의 지역품평회 상위 입상우가 대거 출품하는 등 열띤 경합을 버렸다.

이날 심사는 외국 심사위원에서 국내 심사위원으로 이르기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부심사위원으로는 본회 양신철 영남지부 사업팀장이 맡았다.

양 일간 이루어진 부대행사에는 59개 업체가 참가한 기자재전시회, 대학생 및 낙농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

기술교육을 비롯한 유제품 전시회와 젖소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였다.

올해의 그랜드챔피언은 흥천목장 안래억대표(경기도 이천시 설성면)가 출품한 『흥천 주어러 루돌프 508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광목장 최광현 대표(경북 칠곡군 동명면)가 출품한 『대흥 다크스타 매릭 290호-쌍자』가 준그랜드챔피언의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지역 농가간 결속력을 통한 우수한 소의 경합을 벌이는 지역 대항전 카운티 허드(County Herd)에서는 포천시홀스타인연합검정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낙농후계자 중 학생신분(초·중·고등학교)의 출품농가의 구성원으로 출품우의 순치도 및 출품자의 출품자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새롭게 신설된 부분인 리딩콘테스트(Leading Contest)에서는 어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7명의 학생들이 출품하여 낙농후계자의 사기진작과 출품 숙련도를 겨루는 부분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최우수상은 갈곡목장(경기 포천시)의 장영준(의정부 고교 3학년)군이 수상하였다.

